

# 6월에 다시 노동자의 연대를 생각한다

**박현수**

한국노동사회연구소 이사 · 전국화학노동조합연맹 위원장



서울의 유월 풍경

초여름을 알리는 빛방울을 따라 빨간 장미가 유판하  
봄은 유월이 다가오고 있다. 예년의 경우에 비추어본  
다면 유월은 임단협 투쟁 준비에 여념이 없을 시기인  
데도 올해는 단체협약을 유지하고, 정리해고로부터 조  
합원을 보호하고 각종 탄압으로부터 노조를 지키기 위  
한 몸부림이 치열하다. 오늘 우리네 현장 노동자들은 어떠한가. 산업체해로 날마다 8명 꿀로 노동자들이 숨져 가는 산업 현장. 정리해고의 칼날 앞에 그저 출근  
할 곳이 있다는 것으로 위안을 삼아온 노동자들은 동료들이 퇴직하고 난 벤자리를  
매우느라 갈수록 힘겨운 노동을 하면서도 한숨조차 마음대로 쉬지 못한 지경  
이다. 더구나 임금 삭감, 임업감소로 떠없이 낮아진 임금 탓에 최소한의 생활을  
영위하는 것마저도 힘겨운 상태에 놓여있는 실정이다. 조합원의 요구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는 노조 집행부는 심한 좌절감에 빠져 있다.

직장이 있다하더라도 노동자는 실질임금의 하락으로 생계를 위협받고 있는데  
도 20%대에 이르는 고급리는 않아서 불로소득을 즐기는 계층을 양산하고 있다.  
이제 중산층 신화는 더 이상 무의미한 정도로 우리 사회에 빈부격차가 증대되고  
있는 실정이며, 이에 따라 저소득층의 상대적 박탈감은 날이 갈수록 깊어만 가고  
있다. 1만 9천여 명이 경제난으로 대학을 자퇴하거나 휴학을 하고 있는 실정이라  
고 한다. 이는 지난 해에 비하여 무려 59%나 증가한 수치이며, 그나마 대학을 졸  
업하고도 일자리를 구하지 못해 대부분 취업 체수는 필수가 돼버렸다. 날마다 늘

어떤 의미에서 사회적 합의는 노동자와 자본가가 힘관계에 의하여 맺어지는 사회 약속이며 궁극적으로는 계급 타협일 수밖에 없다. 그러나 한국에서 국가가 개입하지 않는 사회협약은 부도난 수표처럼 무의미할 정도이다.

어가는 서울역 노숙자의 삶은 이미 우리에게 낯선 풍경이 아니다. 돈없고 힘없는 노동자, 저학력 노동자들에게 더 큰 고통이 강요되고 있다는 사실을 누구도 부정 할 수 없는 지경이다.

이것이 IMF구제 금융이 지원되기 시작한지 겨우 반년만에 벌어지고 있는 우리의 현실이다.

끝내 수백명의 무고한 인명을 살상한 인도네시아의 불행한 사태의 밑바닥에는 독재정권의 폭압적이고 비민주적인 통치에서 비롯된 것임은 분명하지만 도화선이 된것은 IMF구제금융 지원 이후 극심한 물가고와 실업자들의 절망이었다는 점은 우리에게 많은 것을 시사한다.

### 노사정위원회에서 무엇을 얻을 것인가

어떤 의미에서 사회적 합의는 노동자와 자본가가 힘의 역관계에 의하여 맺어지는 사회 약속이며 궁극적으로는 계급 타협일 수밖에 없다. 그러나 한국에서 국가가 개입하지 않는 사회협약은 부도난 수표처럼 무의미할 정도이다. 그 단적인 예가 이미 극에 달하고 있는 사용자의 부당 행위이다. 그래서 노동조합은 노사정 위원회의 지위 격상을 요구하여 협약의 이행을 강제하고자 하는 것이다. 노동부는 최근 자료를 통하여 지난 1기 노사정위원회에서 합의한 사항 90개 사항 중 정부가 추진해야 할 과제가 71개였으며, 이중 36개를 완료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노동자의 눈으로 바라보면 1기 노사정위원회 이후 가장 확실하게 이행된 것은 '정리해고' 와 '근로자 파견제' 도입밖에는 없는 것처럼 보인다. 물론 정

부는 기회 있을 때마다 합의사항 이행에 최선을 다하고 있고 장기적으로 해결해야 할 문제가 많다고 강변한다. 그러나 어느 것 하나 국민들이 정말로 개혁을 하고 있다고 느낄 만큼 만족스러운 조치는 없다.

이러한 정서 때문에 현장의 조합원들은 불만의 소리가 높고, 제2기 노사정위원회에 또다시 아무런 조건 없이 참여해야 하느냐는 반대의견이 높다.

그렇다고 무작정 2기 노사정위원회에 불참한다는 소극적인 대응으로는 더 이상 노동자의 권익을 보호할 수 없는 절박한 지경에 이르렀다. 일부 사람들은 '이미 줄 것은 다주었으니 이제 얻으면 된다'라고 낙관적인 견해를 피력하지만 상황은 그리 만만한 것도 아니다. 2기 의제로 올라와 있는 사항 중에는 경영참여나 노조전임자의 임금 문제 같은 반드시 확보해야 할 문제도 있지만 자본측이 주장하는 연월차나 퇴직금 문제 같은 상식 이하의 의제들도 포함되어 있는 것이다.

이는 결국 투쟁력이 뒷받침되지 않는 교섭력이란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는 것을 의미한다. 투쟁하지 않고 모든 것을 협상으로 해결할 수 있다는 환상은 애초부터 가져서는 안될 것이다. 여기서 우리는 참여와 더불어 언제라도 투쟁을 벌여야 한다는 단호한 입장을 견지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

노사정 위원회의 구성은 노동조합이 먼저 정치권과 자본 측에 요구한 사항 중의 하나였다. 노사정위원회의 참여가 자칫 노동조합이 정부 정책수립에 들러리 역할을 할 수도 있다는 우려를 인정한다 하더라도 현재로서는 참여를 통한 대안 제시가 바람직한 길이다.

이제 노동운동 진영은 대다수 국민들이 수긍할 수 있는 진정한 고통분담의 대안을 제시하고 재벌과 정치권 개혁, 나아가 IMF 체제를 극복할 수 있는 대안까지 제시해야 한다.

고용창출과 일자리를 나눈다는 의미에서 주40시간 이내로 근로시간 단축을 법으로 정하고, 효율적인 실업 대책 수립, 사회안전망 확보에 이르기까지 자세하고도 상세한 대책과 대안을 제시하여야 한다. 아울러 불합리하고 무분별한 경영에 제동을 걸 수 있는 경영참가법의 제정, 산별 시대를 준비하는 중앙교섭 제도의 확보 등도 빠트릴 수 없는 과제이다.

처음 겪는 이 중차대한 문제를 해결하기란 분명 쉽지 않다. 그러나 노동운동이 한 단계 도약할 것인가, 아니면 쇠락의 길을 걸을 것인가는 오늘의 노력 여하에 달려 있다는 점을 잊어서는 안될 것이다.

우리는 산업별 노조체계라는 대안을 다시 강조할 수 밖에 없지만,  
다른 한편으로 노동조직간의 대통합을 위한 실질적인 노력을 도모해야 할 시기임을  
각인해야 한다. 바로 오늘의 노동자들은 경제위기에 맞서  
더욱 튼튼한 노동조합 건설이라는 새로운 질적 전환을 요구하고 있다.

### 노동운동의 진정한 연대

외채상환을 위하여 외국인의 투자유치를 적극 추진하고 있는 정부는 현재 심하게 표현하여 '돈이되는 것이면 무엇이든 판다'는 정책을 내놓고 있다. 그 대상이 공익을 우선하는 공공부문이라 할지라도 막각하겠다는 지경에 이르렀으니 사기업이야 두말할 나위가 없다. 일방적인 구조조정에 대한 반대와는 별개로 이제 한국의 노동자는 바야흐로 초국적 자본과 대항하여 노동자의 권익을 지켜야 할 입장에 처해있다.

5월 28일 브뤼셀에서 개최된 국제화학에너지광산노련(ICEM)에서는 신자유주의 세력에 어떻게 맞설것인가, 초국적기업에 어떻게 대항할 것인가에 대한 진지한 논의가 있었다. 결국 노동조합의 해답은 ICEM을 통한 국제 연대를 강화하는 것이었다. 교파서 같은 말이지만 초국적 기업에 대항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노동조합의 국제연대란 결론이었다. 과연 실제로 국제 산별조직이 어느 정도의 위력을 발휘할 것인가.

사무실이나 안방에서 전세계의 금융시장을 마음대로 돌아다니는 초국적 자본에 맞서 노동조직이 얼마나 연대를 발휘할 것인가에 대해서는 회의적인 생각이 들지만, 현재로서는 더 이상의 대안이 없는 것 같다. 어쩌면 전세계의 노동자가 고립되지 않고 연대의 의식을 갖는다는 것은 이미 그것만으로도 희망인 것이다. 물론 노동운동도 이제는 정보화에 대한 관심을 게을리 할 수 없다는 점도 간과해서는 안될 것이다.

그러나 이보다 더욱 심각하게 고민해야 할 문제는 우리나라 노동운동의 통합

이다. 이번 정부의 일방적인 공공부문 구조조정 방침에 맞선 노동조합의 대응과 노사정위원회의 구성이라는 일련의 과정에서 양 노총이 벌인 각각의 투쟁에도 불구하고 결국 자본과 정부의 분리지배 전술을 효과적으로 제압하지 못했음을 인정해야 할 것이다. 각각의 조직은 각각의 조직논리를 가질 수밖에 없고 의도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경쟁을 통한 힘의 상승' 보다는 '분열로 인한 힘의 약화'를 초래하고 있다.

양 노총을 통틀어 40개가 넘는 산업별 연맹이 존재하고 있는 현실은 다함께 재정난과 인력난을 가중시키고 있다. 기업의 부도와 폐업, 그리고 퇴직과 해고로 인하여 조합원의 감소는 심각할 수준에 이르고 있다. 그렇다고 실업자나 임시직, 비정규직의 조직화문제도 쉬운 것이 아니다. 법적인 제약을 논외로 하더라도 정 규직만을 조직화의 대상으로 사고해온 우리의 기업별 노조하에서 현실적으로 그리 간단한 문제는 아니다.

### **흐르는 강물처럼**

여기서 우리는 산업별 노조체계라는 대안을 다시 강조할 수 밖에 없지만, 또 다른 한편으로 노동조직간의 대통합을 위한 실질적인 노력을 도모해야 할 시기임을 각인해야 한다. 바로 오늘의 노동자들은 경제위기에 맞서 더욱 튼튼한 노동조합 건설이라는 새로운 질적 전환을 요구하고 있다.

기업의 울타리를 뛰어넘어 재정과 인력을 중앙으로 집중하는 한편, 현장에서 민주적이고 헌신적인 간부들을 적극 양성함으로써 노동조합의 기동을 튼튼히 세우려는 노력에 정열을 바쳐야 할것이다. 흐르는 강물이 고이면 썩은 물이 되듯 이 노동운동도 현실에 안주하는 순간 이미 그 존재의 의미를 잃은 것이다. 처절하게 붉은 장미처럼 순수하고 뜨거운 가슴을 가진 노동조합의 간부가 절실한 계절이다.